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9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트럼프 "이란 공격 연기"..미국 증시 혼조 마감

- 미국증시 주요 지수 낙폭 축소, 혼조 마감: 다우 +0.25%, 나스닥 -0.51%
- 트럼프 "19일 예정했던 이란 공격 보류"..금리·달러 '일단 진정'
- 메모리 반도체주 약세 지속

Summary

미국증시 장 중 낙폭 축소

5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장 중 약세 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마감을 앞두고 하루 뒤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단 보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료 삼아 낙폭을 축소, 지수별로 혼조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2% 상승한 49,686.12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07% 하락한 7,403.05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51% 하락한 26,090.734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0.65% 하락한 2,775.102에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3.31% 하락한 17.82에 마감.

(다우 +0.32%, 나스닥 -0.51%, S&P500 -0.07%, 러셀2000 -0.65%)

트럼프 "이란 공격 연기"

미중 정상회담 이슈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의 눈은 다시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 쏠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관련 해법이 명확히 도출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이란이 미국에 수정된 종전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잠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함. 다만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제시한 수정 종전안에 대해 백악관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군사 옵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 또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므로 합의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나스닥 지수는 장 중 낙폭을 확대해 1.36%까지 하락하기도. 다만 오후장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중동 국가 수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소식은 장 중 확대되던 국채금리 상승폭 축소, 달러 강세 완화로 이어져 주식시장 낙폭 축소를 견인함. 장 중 약보합 흐름이었던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등 주요 지수 혼조 마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중동 및 그 외 지역 국가들도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태라고 덧붙여 관련한 긴장 고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금리 상승세 진정됐지만..

영국 국채 금리의 하락 전환 등에 영향을 받아 장 초반 하락하던 미 국채 금리는 장 중 유가 상승과 맞물려 반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발언에 상승폭을 2~3bp 축소함. 그럼에도 2년물 금리는 4%를 상회하고 있으며 10년물 금리도 4.6%를 상회.

이같이 최근 절대적으로 높아진 채권 금리는 실물 경제에 부담 요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정보 업체 뱅크레이트를 인용해 현지시각 18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6.49%를 기록,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함. 이는 미 연준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지난해 9월과 비슷한 수준. JP모건자산운용은 이란 전쟁이 채권 수익률의 바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 국채 금리 상승세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전망.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거래량 부진을 겪고 있는 미국 주택 시장에 추가 부담 요인.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402만건으로, 봄 성수기임에도 9개월만의 최저 수준이었던 3월 수치 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침.

반도체주 약세는 지속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건 반도체주 하락이 이어진 영향. 이날 반도체주는 데이브 모슬리 시게이트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주목했음. 데이브 모슬리 CEO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새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AI 인프라 확대를 둘러싼 공급망 병목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7% 하락.

오는 20일(현지시각)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일단 쉬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함.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260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

특징종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 이날 하락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6.87%) CEO의 발언에서 촉발됐는데 데이브 모슬리 CEO는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공지능 구축으로 인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발언. 그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생산량 증대를 시도한다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은 결국 해당 기술 생태계의 성장 속도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최근 최근 강력한 상승세를 구가해온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전반적인 약세로 이어짐. Roundhill 메모리ETF(DRAM)(-3.4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95%), 샌디스크(-5.30%), 웨스턴 디지털(-4.84%).

한편 HBM 수요 급증으로 급등세를 보이다 최근 3거래일 연속 크게 하락한 마이크론 테크

놀로지(-5.95%)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에서 "제 2의 엔비디아(-1.33%)로 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모틀리풀은 엔비디아의 경우 AI 가속기 설계 뿐 아니라 쿠다(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 업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은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AI 생태계의 필수 공급업체이지만 엔비디아처럼 시장 자체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은 아니"라고 분석. 고객사들이 가격 또는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약점으로 지적.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금요일 시장 약세 속 내림세를 보였던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5.28%)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 모건스탠리는 "상대적으로 디램 웨이퍼 제조 장비를 낸드보다 선호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램 리서치(-2.37%) 대비 우위에 놓았지만 디램 웨이퍼 제조 장비의 추정치 상향 여력이 좁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낸드 웨이퍼 제조 장비의 실적 추정치 상향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램 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다"고 밝힘. 램 리서치의 목표주가는 기존 293달러에서 331달러로 상향.

이외 인텔(-0.55%), 브로드컴(-1.05%), AMD(-0.73%) 등 반도체주 대체로 약세 보인 가운데 Vaneck 반도체ETF(SMH)(-1.83%), Ishares 반도체ETF(SOXX)(-2.49%) 등 주요 ETF도 약세.

소프트웨어 ↑

다만 전일에 이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체로 강세. 퍼싱 스퀘어에서 1분기 지분을 신규로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0.38%)가 이틀째 상승했고, 이외 팰로 앨토 네트웍스(+1.9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4.17%), 포티넷(+3.03%), 세일스포스(+3.44%), 서비스나우(+8.78%), 인튜이트(+2.58%), 어도비(+3.25%), 오토데스크(+2.90%)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 키뱅크 캐피털 마켓츠는 최근 제한적으로 출시된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가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등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사이버 보안 업계가 지출 증가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 이에 키뱅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4.17%)의 목표주가를 기존 525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하고 '비중 확대'의견을 유지. 옥타(+5.16%)의 목표주가는 기존 95달러에서 103달러로 소폭 상향했고 지스케일러(+8.47%)의 목표주가 역시 기존 16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세일스포스(+3.44%)에 대해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용 확대에 따른 경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성장세 둔화를 예상해야 한다고 분석.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하는 한편 목표가를 160달러로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서비스나우(+8.78%)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AI 에이전트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달러로 커버리지를 재개.

AI발 전력 수요 급증 속 '에너지 공룡' 탄생

유틸리티 업종 내 주목할만한 거대 딜 소식이 전해짐. 미국 최대 유틸리티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4.63%)와 도미니언 에너지(+9.44%)의 합병 소식.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넥스트에라는 경쟁사 도미니언 에너지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는 통합 기업의 가치는 약 4200억 달러로 추산. 이는 LSEG 기준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 존 케첨 넥스트에라 CEO는 "전력 수요가 수십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이번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 실제 AI 산업 폭발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미국 전력업계는 수십조원 규모의 설비 확충 압박에 직면해있으며 이번 딜로 인한 거대 기업의 탄생은 이 같은 대규모 설비 확충 요구에 대응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다만 이번 거래는 미국 반독점 당국과 각 주 에너지 규제기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 승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딜이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넥스트에라는 도미니언에 48억 달러 규모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승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인수 합병에 대한 부담 등을 반영해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하락 마감했고, 도미니언 에너지 역시 상승했지만 장 중 보였던 10% 이상의 급등세에서는 물러섬.

이외 특징주

유가 상승은 엑슨 모빌(+1.63%)과 셰브론(+2.63%), 코노코필립스(+1.74%) 등의 에너지주에 여전한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장 중 유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자 실물 경기 위축과 그로 인한 소비 양극화에 대한 전망으로 월마트(+1.44%), 코스트코(+2.62%), 코카 콜라(+0.47%) 등의 필수소비재주가 강세를 보임. 금값 하락과 함께 전일 급락했던 뉴몬트(+0.72%)는 장 중 금값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 다만 구리 가격 약세와 함께 프리포트 맥모란(-3.98%)은 사흘 연속 하락.

생명과학 장비업체 바이오 래드 래브러토리스(+13.85%)는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상당 규모 지분을 확보했다는 WSJ 보도 이후 급등. 다만 엘리엇 측의 정확한 지분 규모나 회사 관련 계획은 알려지지 않음.

미국 바이오 제약사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9.82%)는 피부암 치료제가 후기 임상 시험에서 주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급락.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0.69%)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 중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3.07%)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77,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하자 약세. 비트코인 디포(-73.24%)가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9천대에 달하는 비트코인 ATM 전체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며 급락한 것도 관련주 약세 요인.

웰스파고가 바이킹 홀딩스(+2.82%)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예약률과 이란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를 투자의견 상향의 이유로 들어. 특히 2027년 예약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혀.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ADAS) 제조 업체 모빌아이 글로벌(-6.79%) 주가가 제프리스의 '시장수익률 하회' 투자의견과 함께 하락. 제프리스는 모빌아이에 대해 목표주가 8달러를 제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있으며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이 주가에 반영돼있다고 경고.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9.82%)의 주가가 올해 자사주 매입 목표를 두 배로 늘린 후 상승.

의료기기 회사 보스턴 사이언티픽(+6.15%)은 20억 달러 규모의 가속화된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따라 상승. 비상장 심장판막 업체 미러스에 15억 달러를 투자, 이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대체로 상승, 막판 상승폭은 축소

미 국채금리는 대체로 상승 분위기 안에 머물렀음. 이날은 최근 급등하던 영국 국채(길트)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으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반 커져 국채금리도 초반 하락. 다만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수정 종전안에 대해 미국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백악관은 군사 작전 재개 옵션을 고려 중이라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가 전해지자 초반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급반등했고 미 국채금리 역시 상승으로 돌아서 오름폭을 확대. 하지만 오후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에 국채 금리는 상승폭을 고점 대비 2~3bp 가량 축소함. 2년물 금리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음.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7bp 상승한 4.623%를 기록했고 2년물 금리는 0.6bp 상승한 4.090%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1.9bp 상승한 5.147%를 기록.

최근 영국 내 정국 불안 등으로 급등세였던 영국 국채(길트) 금리는 이날 크게 하락함.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앤디 버넘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대변인이 이날 버넘 시장이 총리가 되더라도 현 재무장관의 재정 준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영향. 재정 우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길트 30년물 수익률은 전장 대비 9.98bp 하락함.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소폭 상승한 50%대 초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 후반대로 전장 대비 다소 낮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함.

달러 6일만에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파운드화가 급등하고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는 등의 재료를 반영하며 6거래일만에 하락.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99.016을 기록해 전장 대비 0.279% 하락. 미국이 이란산 원

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이란이 제안했다는 보도에 유가가 하락하자 달러 역시 유럽 거래 마감을 앞두고 약세 압력을 받았음. 이후 이란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상승 반전했던 달러는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히자 다시 반락.

최근 정국 불안에 급락하던 파운드화는 이날 급반등.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앤디 버넘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이 시장 예상과 달리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영향. 파운드-달러 환율은 0.836% 급등한 1.343달러를 기록. 유로-달러 환율도 0.267% 반등.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00.3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7.40원 하락한 1,492.9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4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0.75원 하락한 1,488.10원을 기록.

브렌트유 112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이란 사이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0달러로 전장 대비 2.60%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3.07% 상승해 배럴당 108.66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는 이달 4일 이후, WTI는 지난달 7일 이후 최고가에 이날 거래를 마침.

이날 이란은 종전 관련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건넸지만, 미국은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장 초반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2% 이상 급락하기도 했던 WTI는 다만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상승 반전해 종가 산출을 앞두고 오름폭을 확대함.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 수뇌부 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군사적 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다만 종가 산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19일에 하려고 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그는 카타르 국왕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군사작전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진지한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을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 미군에 추가 지시했다"고 덧붙여 긴장은 여전한 상황.

한편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상업용 원유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고 있으며 현재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힘. 그는 전략 비축유 방출로 하루 25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 공급됐지만 이는 무한하지 않다고 지적.

금가격은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소폭 하락.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

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결제가 대비 0.24% 하락한 트로이 온스당 4,550.90달러에 거래됨. 장 중 한때 4,48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해 지난 3월 30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했지만 낙폭 축소.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0.3% 내외 하락한 온스당 77달러 초반대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